

# 순천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 박차

2023정원박람회 개최 대비  
전문가·시민 참여 준비 포럼  
도시재생·정원·기후변화 대응  
미래 방향 제시·관련 법률 절실



지난 3일 열린 '순천 정원도시 비전포럼' 참석자들이 30만 정원도시 순천의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인 순천시가 항구적인 정원도시와 기후 변화 등 미래 대치를 위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10년 전보다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변화 속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30만 정원도시 순천비전을 목표로 도시재생과 기후변화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도시' 목표로 다가가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착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각계 전문가 및 시민이 모인 가운데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순천 정원도시 비전 포럼'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순천시가 추구하는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 등 법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한국조경학회장 조경진 교수와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교수, 최정민 순천대학교 교수 등 토론 참석자들은 순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이를 통한 비전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과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태훈 순천시 기획예산실장이 '30만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비전 소개와 핵심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포럼의 문이 열리자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정원도시 비전 및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초 강연을 통해 순천이 그리는 정원도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은 "30만 정원도시 순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전략을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주민이 주체가 돼 주도하고 타 지자체는 물론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재생하는 것이다. 개발의 흔적에 신음하는 도시를 치유하고, 시민들이 주인 역할을 다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마을 정원을 늘리고, 마을정원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6명의 패널들은 도시정원의 미래와 도시정원진흥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시민 대표의 풍성한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는 정원도시 순천에 정

원연구와 도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춘 정원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하면서 "정원특별시는 의료·복지와 연계한 건강특별시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는 "문화특별시로서 정원시는 지속가능성, 유네스코 창의 도시 모델로 정원도시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포럼이 대한민국 최초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모델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원도시진흥법 제정을 위해 향후 국회에서도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선언했다.

순천시는 지난 6월 조례호수공원에서 2050순천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30만 정원도시 순천 비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민 공론화, 핵심사업 부서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보성군 서편제 정통 판소리 매주 토요일 공연

11월 27일까지...온라인 공연도

"서편제 정통 판소리가 듣고 싶을 때 매주 토요일 보성에 가자."

보성군은 정통 판소리 토요 상설 공연 '소리판' <사진>을 매주 토요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공연을 시작한 토요 상설 공연은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보성 판소리 성지(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에서 선보인다.

'정통 판소리 명창과 함께하는 판소리'를 주제로 세계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의 근간을 이어온 서편제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정통 소리의 명맥을 잇는 국악·민요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 간격 유지(최소 1m 이상), 출입자 전원 발열체크 및 전화 출입 명부 등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적용한다.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유튜브(채널 보성판소리성지)와 페이스북 등으로 공연을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위축된 지역사회에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해 소리의 고장 보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우리 소리를 즐기는 공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

# 추석 수송 대비...고흥 여객선 8척 특별점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고흥 운항관리센터(센터장 임상호)에서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 선박검사시간의 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고흥관내 여객선 8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항해, 기관, 구명, 설비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 여객선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녹동항의 주요 항로라 할 수 있는 녹동-제주, 성산포 및 금일도 항로 여객선에 점검반이 직접 승선하여 항로 및 접안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현장점검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함양에 힘쓰는 등 추석 연휴 기간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합동점검에 앞서 녹동~성산포 항로 선라이즈제주호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흥운항관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녹동항을 찾는 국민 안전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교육원 문 열어

해양 인재 양성·재난 안전 교육

해양 인재 양성과 재난 안전 교육을 담당할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들어선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은 국·도비 119억원 등 18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됐다.

1층에는 수영장, 스쿠버다이빙풀이 들어섰고, 2층에는 해양환경 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 체험관 등이 선보였다.

3층, 4층은 다목적 강당과 최대 152명이 숙박할 수 있는 27실 규모의 생활관이 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는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6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해양인재 양성에 나선다.

생존수영과 선박사고 훈련 등 해양 안전교육과



여수시는 지난 3일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주철현·김희재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 <여수시 제공>

프리다이빙, 스낵스쿠버, 카약 등 해양 레저 스포츠도 제공한다.

해양 환경·과학과 해양진로 직업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여수 바다와 섬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구례 매천도서관 가을맞이 독서 프로그램

구례군이 매천도서관에서 독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작가 최설희씨의 인문학 특강 '나도 내 이름으로 책 한 권 내고 싶은데'와 독서의 달 홍보 이벤트, 책 읽어주는 시간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천서, 방광초 유품전시관, 호양학교 등을 탐방하는 구례문화기행과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글쓰기, 그림엽서, 한지인형 등 작품전시회도 열린다.

오는 8일에는 '찾아가는 지혜의 숲, 전남도민강좌'로 지역 출신 정치자 작가의 '자본주의의 적' 강좌가 진행될 예정으로, 어느 때보다 알차고 다양

하게 군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 및 인문학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군민이 행복한 지역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꾸준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매천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는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9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이 독서의 달 프로그램에 참여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책 읽는 즐거움으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